

# 공직자 재산 1위는 '165억' 한전 김종갑 사장

### 나주 기관장 9인 재산내역 보니...평균 29억4700만원 전년비 20%↑ 김종갑 사장, 강남 아파트 2채 등 보유...주식 대박으로 28억원 증가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박성철 한전KDN 사장 뒤이어

공직자 재산 1위는 김종갑 한전 사장으로, 전년보다 28억원(20.4%) 증가한 165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을 공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현직 기관장 9명 재산총액은 평균 29억4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5억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28억원 늘어 지난해 재산총액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신고액 12억8185만원보다 10.2%(1억3112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재산 공개에는 나주 혁신도시 기관장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9억4700만원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다. '1위' 김종갑 사장 분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2억49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국 공직자 평균 재산(14억1297만원) 보다 많

이 가진 자는 김종갑 사장(165억원)과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18억8700만원), 박성철 한전KDN 사장(18억5800만원), 김범년 한전KPS 사장(14억9100만원) 등 4명이었다.

김 사장은 그와 배우자는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합쳐 16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26억3800만원)와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10억3900만원) 등 강남권 아파트 2채, 파주 일대 땅(14억원 상당), 63억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급증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식 622주를 추가로 사들여 총 782주를 확보했다. 또 세계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주식도 300주 매수했고,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만든 온라인 결제 플랫폼 스퀘어의 주식도 300주 사들였다. 자신이 대표를 지낸 한전과 지멘스 등의 주식도 보유 중이었으며, 국내 대표 바이오주인 셀트리오는 주식도 모두 764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13억 7600만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11억

기관명	기관장	현재가액	증가액	증가율
한국전력	김종갑	165억3100만	28억	2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18억8700만	7억3700만	6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전)	8억5700만	1억3600만	18.9
한전KPS	김범년	14억9100만	2억1900만	17.2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6억9300만	8600만	14.2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11억7400만	1억2500만	11.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오병석	13억7600만	1억4100만	11.4
한전KDN	박성철	18억5800만	1억8700만	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6억5400만	6300만	10.7
평균		29억4700만	5억	20
한전 제외		12억490만	2억1200만	20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7400만원),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8억5700만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억9300만원),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6억5400만원) 등 순이었다.

재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정한근 원장이 64.1%(7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뛰었다. 상속 등으로 예금액이 5억2000만원이 증가하고, 1억3000만원 상당 진주 일대 땅을 가족이 상속 받았다.

김종갑 사장 재산 증가율이 20.4%(28억원)로 뒤를 이었고 이병호 전 사장(18.9%·1억3600만원), 김범년 사장(17.2%·2억1900만원), 김인식 사장(14.2%·8600만원), 김영준 원장(11.9%·1억2500만원), 오병석 원장(11.4%·1억4100만원), 박성철 사장(11.2%·1억8700만원), 박종관 위원장(10.7%·6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광주 복지시설 7곳에 후원금 전달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광주지역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7곳에 1400만원 상당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현규(왼쪽) 한전 상생발전본부장이 지난 29일 김인숙 광주여성성전화 부설 기관 '바림' 소장에게 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

한전은 '광주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임시 거주를 위해 운영하는 '초록누리 사업' 주거 지원시설을 방문해 가전제품과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 이달 현재 초록누리 사업을 통해 가정·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및 동반가족 1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국 313개 사회봉사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러브펀드 등을 활용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311건(13억7000만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ISA, 물품·마스크 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를 통해 임직원이 함께 모은 의류·도서 등 재사용 물품과 마스크 1000장을 기부했다. 허해녕(왼쪽) 소통협력실장이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본부장에 기념물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제공)

## 인터넷진흥원, 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 클라우드 보안구축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과 '최정에 정보 보호 전문 인력(케이실드-K-Shield)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실드 양성 교육은 정보 보호 분야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다. 교육은 오는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생은 산업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과정(3~4일), 케이실드 단기 과정(2~5일), 케이실드 정규 과정(10~12일) 등의 교육과정 중에서 직무 경력을 고려해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올해는 실무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클라우드 보안구축, 스피어피싱 공격·대응 실무 등 총 4개 과목이 신규 개설됐다.

올해부터는 교육 범위가 대규모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 경우 자체 부담금(20%)이 발생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사장 공모에 1명 지원 다음달 5일까지 재모집 공고

### '사내 추천'도 병행

한국전력 사장 지원자가 미달돼 재공모를 진행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개교를 앞두고,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 사장 공모의 이례적인 흥행 실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한 사장 모집에 단 한 명만 지원하면서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29일 재공모를 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번에 한전은 공모와 별개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장 후보 추천을 받는 '사내 추천'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추위는 후보자 3~5명(배수)을 선발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해야 하는데, 지난 공모에서는 외부 인사 1명만 지원하면서 임추위의 복수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운위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종갑 현 사장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끝나지만, 연초부터 후임에 산업부 관료 출신 등 5~6명이 마하평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공모 때는 내부 1명, 외부 3명 등 총 4명이 지원한 바 있다.

한전 사장 임기는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며, 지난 2019년 연봉은 2억6000만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스팸전화 아니에요" 사학연금 발신기관알림 서비스

### 내일부터 기관명 표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발신정보알림 서비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발신정보알림 서비스란 일반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 때 수신자 휴대폰 통화연결 화면에 발신기관명(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고객에 스팸 전화로 오해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전화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연금업무 부서가 상담전화를 걸 때 수신자는 발신전화 출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발신 기관명은 부재전화 발생 때도 남는다.

주명현 이사장은 "최근 고객들이 모르는 번호는 스팸전화로 오인해 잘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원·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